

2004/2005년도 <P.S.1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젊은 미술작가를 국제무대에 진출시키고자 「P.S.1 현대미술센터(P.S.1 Contemporary Art Center)」에서 주관하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io Program)>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성향의 현대작가들에게 1년간 작품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참가작가들을 다양한 통로로 뉴욕미술계에 소개하는 국제적인 미술교류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에서 현대미술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예술적 기량의 연마를 통해 자신의 독창성을 국제무대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젊고 패기있는 작가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처 : 미국 뉴욕 「P.S.1 현대미술센터(P.S.1 Contemporary Art Center)」
(1971년 A. Heiss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 뉴욕시내의 폐쇄된 건물을 혁신적인 작가들에게 전시, 퍼포먼스, 스튜디오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임.)
- 참가기간 : 2004. 9. 1 - 2005. 8. 31(1년간), 예정
- 스튜디오 장소 : P.S.1 Museum (뉴욕시 롱아일랜드 소재)
(1888년 설립된 Public School One(P.S.1)이라는 초등학교가 폐쇄된 후 건물을 개조해 Project Studios One(P.S.1) Museum으로 개명한 것임.)
- 한국작가 참가자 수 : 1인(2004/2005년도)
- 프로그램
 - 젊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각국의 현대미술 작가들(미국 및 외국작가 20여 명)에게 전용 작업공간 (개별 스튜디오)을 제공하고 작업과정 개방을 통해 작가 상호간의 교류 촉진
 - 참가작가들의 작품 카탈로그를 매년 발간하고,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참가작가가 뉴욕 미술계에 집중 소개되도록 기회를 부여.
 - 작년도(2003/2004년도) 동 프로그램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북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크로아티아, 대만 13개국의 작가 참여.
 - 이 프로그램은 공동 후원자인 각국의 정부나 재단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며, 1976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우리 문예진흥원이 후원자로 참여한 것은 1991년부터임.

문예진흥원 지원내용

- 연간 스튜디오 사용료 : 미화 10,000불 ●현지 체재비(1년) : 미화 20,400불(월1,700불)
- 서울-뉴욕간 왕복 항공료 : 실비(보통석) ●귀국보고 전시회 지원 : 5,000,000원

참가신청을 하시면...

- 접수기간 : 2004. 2. 10(화) ~ 3. 10(수), 마감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 작가 선정기준
 - 만 45세 미만 (2004. 9. 1일 기준)의 미술작가 (단, 학부재학생은 제외)
 - 내실있는 작품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미술분야 신진 작가로서, 구체적인 장르는 제한하지 않으며 복합장르도 무방함.
 - 작품의 실험성(현대성), 혁신성(독창성), 예술성, 주제의 형상화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함.
-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1부(참가신청서 다운받기)
(문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f.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대표적 전시회 카탈로그 : 3종, 각 1부
- 작품 슬라이드(규격 35mm)자료(20종 각 1매)나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CD 1매.
- 작품 비디오 테이프 : 1부(규격 VHS / NTSC 방식)
- * 비디오 테이프는 작품성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신청서는 가급적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서하여 주십시오.
- 슬라이드 목록 번호순대로 해당 슬라이드 상단에 연필로 제출자 성명과 번호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작품 슬라이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참고 : 추후 [한국위원회]에서 선정된 10인의 후보작가는 소정양식의 영문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참가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1부 대외교류팀 (문예진흥원 본관 2층)
-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우편번호 110-766)
- 전화 : 760-4574 (팩스 : 760-4694) | E-mail : snufkin@kcaf.or.kr

파견작가로 선정되시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 참가 지원을 신청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9인 이내로 구성되는 한국 측 선정 위원회인 '한국심의회위원회(Korea Panel)'에서 10인의 후보작가를 1차로 선발함.
- '한국심의회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작가의 각종 심의자료를 주관처에 송부, '뉴욕 심의회위원회(New York Panel)'에서 최종 심의하여 한국참가작가 1인을 확정함.
- '뉴욕위원회' 심의 시 '한국위원회' 위원 1인을 대표위원으로 파견하여 한국측 후보작가들의 작품 경향 및 작품세계를 소개함.

파견작가 선정통보

● 후보작가(10인) 선정

- 2004년 3월 말경 '한국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를 모든 신청작가들에게 개별 서면통보

● 파견작가(1인) 최종 선정

- 2004년 5월 중 후보작가들에게 개별 서면통보

※ 역대 파견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1 / 1992년 이강소 · 경상대교수 | 회화 | 남
1992 / 1993년 김수자 · 설치미술 | 여
1993 / 1994년 하용석 · 퍼포먼스 | 남
1994 / 1995년 김영진 · 설치 | 영상 | 남
1995 / 1996년 박화영 · 설치미술 | 여
1996 / 1997년 오상길 · 설치미술 | 남

1997 / 1998년 신현중 · 조각 | 남
1999 / 2000년 김승영 · 설치미술 | 남
2000 / 2001년 윤영석 · 조각 | 남
2001 / 2002년 김홍석 · 설치미술 | 퍼포먼스 | 남
2002 / 2003년 김종구 · 설치 | 영상 | 남
2003 / 2004년 김옥선 · 사진 | 여 | 현재 참가 중

무대예술의 전문인력을 모집합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직업적인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2004년도 무대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무대의상(10명), 무대분장(10명), 연기(20명) 3개로 1년 2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지원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무대분장 전공은 미술관련학과 출신 및 미용사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서류와 면접 심사(연기 분야는 오디션 포함)를 거쳐선발하게 됩니다.

지원서는 3월 4일까지 문예진흥원 본관 안내실 및 예술극장, 문화예술연수원, 예술의전당 내 예술자료관, 본원 홈페이지(www.kcaf.or.kr)에서 교부하고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예진흥원 문화예술연수원(02-760-4667~8) 및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봄을 맛보세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에서 '2004년도 고전음악강좌' 회원을 모집합니다. 고전음악강좌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1987년 처음 개설한 이래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과 호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전음악강좌는 분야별로 오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 강사진의 이론 강의와 음악감상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초보자에서부터 애호가까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고전음악강좌는 화요반(기초과정), 수요일반(심화과정), 목요일반(중급과정)으로 나뉘어져 각 반별 60명 내외를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요반은 3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고전주의 음악(이영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바로크 음악(허영한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낭만주의 음악(신혜승 · 여주대학교 교수), 후기 낭만주의와 현대음악(홍승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으로 고전음악을 시대별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반은 3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오페라 읽기(김학민 · 오페라 연출가), 후기 낭만주의의 대기들(김용환 · 한세대학교 음대학장)로 꾸며지며, 중급과정인 목요일반은 3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의 거장들(문일근 · 음악평론가), 지휘의 거장들(하성호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성악의 거장들(장일범 · 음악 컬럼니스트), 피아노의 거장들(최연희 · 서울대 강사)로 '명반으로 듣는 세기의 거장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접수는 3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술자료팀(02-760-4676, 4680) 및 본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